

중국에서의 ‘현대일본연구’ 현황과 인식

장젠(張健)*

이른바 ‘현대 일본’이란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투항한 이후 지금까지의 일본을 가리키며, 대략 66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현대 일본 연구는 내용에 있어서 현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여러 방면을 포함하는 종합적 연구이다. 학문분과 측면에서는 역사학, 세계사, 개별국가역사의 한 분야이자 또한 법학, 국제문제연구의 한 분야로, 역사학과 국제문제연구가 상호 교차되는 학문분과이다. 동시에 구체적 연구의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 학문분야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현대 일본 경제를 연구한다면 경제사 및 세계경제와 관련될 것이고, 현대일본정치의 경우에는 정치사나 국제정치 등과 관련될 것이다. 종합해볼 때 현대 일본 연구는 여러 개의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현대 일본 연구와 관련하여 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하나는 중국학자의 현대 일본 연구 현황이며, 또 하나는 현대 일본 연구에 관한 나의 개인적 인식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1949년 신중국 건국일로부터 현대일본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장기간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으로 중국인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으며, 전후 일본은 또한 미국의 종용 하에 타이완 당국과

* 중국 텐진사회과학원.

‘평화조약’(주: 타이완의 중화민국 귀속을 내용으로 함)을 맺었다. 이와 동시에 ‘냉전(冷戰)’이 중국과 일본을 각기 다른 두 진영에 귀속시켰고, ‘열전(熱戰)’의 폭발은 다시금 중일 양국을 다른 두 진영의 선봉에 세워 참여한 군사적 대치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에서의 현대 일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대한 정부의 논전(論戰) 위주로, 학자들의 참여는 매우 적었다. 둘째, 정부의 태도는 대일비판을 위주로 하였으며, 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나 미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 대만 당국과의 결탁 등에 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70년대 초기까지 지속되었다.

1970년대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현대 일본 연구가 걸음을 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현대 일본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198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2년 중일 양국이 국교를 회복하고, 1978년 양국이 평화우호조약을 맺었으며, 이로부터 두 나라 간의 적대적 상태가 종식되고 평화 우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둘째,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12차 전국대표대회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동란을 끝냄으로써, 역사적 전환기에 접어들었으며 사상의 자유를 얻었다. 개혁개방의 물결은 장기간에 걸쳐 사상적으로 속박되어 있던 많은 일본 연구자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장애물이 사라지자 학술계에 봄이 찾아왔다. 이렇게 해서 1980년대 초부터 중국의 현대 일본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로부터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현대 일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낸다.

첫째, 연구 인력의 확대

‘중국일본사학회’를 예로 들어보면, 1980년 중국일본사학회가 성립될 때 회원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전후 일본(즉 ‘현대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는 20여 명에 불과했다. 20세기 말까지 중국일본사학회 회원은 300여 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전후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는 100명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중화일본경제학회’, ‘중일관계사학회’ 등의 학회가 계속해서 성립되어 중국의 현대 일본 연구는 변영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둘째, 연구 성과의 현저한 증가

통계에 따르면, 1949년 10월 1일부터 1993년 3월말까지 전국에서 일본연구와 관련된 지역서는 3,529권이 출판되었으며, 그 중에서 1979년부터 1993년 3월말까지 출판된 것이 3,157권에 달하여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일본 연구와 관련된 학술지는 연구 성과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1972년 이후 중국에서 나온 일본 연구 관련 학술지는 53종에 이르고,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3종의 일본 연구 관련 주요 잡지에 발표된 논문이 1,354편이라고 한다. 이 시기의 연구 성과는 수량 면에 있어서 전에 없던 발전을 보여주었다.

셋째, 강한 목적의식, 제한된 연구 영역

1980년대 중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술연구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문화대혁명'이 막 끝나고 현대화 건설이 시작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연구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현대 일본 연구에 있어서 그 연구 성과가 대개 전후 초기 일본의 민주개혁, 일본 경제의 고속 성장, 중일 관계 등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거 집중되어 있었기에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며, 현대 일본을 연구하여 중국의 현실에 적용하여 중국의 현대화에 거울로 삼고자 하는 이른바 '양위중용(洋爲中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상황은 비록 어느 정도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현대화에 있어서나 혹은 현대 일본에 관한 중국의 학술 연구에 있어서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학술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였고, 이러한 상황은 중국 학술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중일관계의 '밀월'시기로, 양국의 정치·경제관계가 발전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에 더욱 커다란 힘이 되었기에 중일관계는 날로 중요해져갔다. 중일 우호관계의 영향으로, 중국의 현대 일본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현대 일본 연구에 있어서의 주요 발전과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연구영역 개척 : ‘점(點)’에서 ‘면(面)’으로

1980년대 중국에서의 현대 일본 연구는 여전히 전후 일본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만 국한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접어들어서는 연구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대 일본의 각 방면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 전후 50년에 걸친 일본 경제사, 외교사, 정치사, 중일관계사에 관한 저작이 나왔고, 동시에 현대 일본의 사회, 문화, 교육 등에 관한 연구 성과도 다수 나왔다. 비록 아직까지 이 시기의 연구성과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현대 일본 연구는 전면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겠으며, 이는 이미 공인된 객관적인 사실이다.

2. 연구체제의 최적화, 연구자의 시야 확대

연구체제에 있어서 1980년대 초기, 중국의 일본연구 전문기관은 매우 드물었으며, 그나마 있던 몇몇 연구기관은 대부분 일본의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난카이대학(南開大學)의 일본 연구는 각 과에 분산되어 있어서 외국어과는 일본의 언어와 문학을 연구하였고, 역사학과 일본역사연구실에서는 일본역사를 연구하였으며, 경제학과에서는 일본경제 연구자가 경제를 연구하였다. 다른 학교의 상황도 대체로 유사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서 한 분야에 대한 단독 연구를 수행하던 연구기관들이 점차 조정을 거쳐 각 대학에는 종합적 성격의 일본연구센터 혹은 일본연구소가 생겨나서 일본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에 대해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 이러한 상황에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즉 단순한 일본연구에서 더욱 종합성을 띠는 지역연구 혹은 국제연구로 변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시기 각 대학에는 동북아연구원(소), 동아시아연구원(소), 아시아태평양연구원(소) 및 국제경제연구원(소), 세계경제연구원(소) 등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다. 단순히 일본의 한 분야를 연구하던 것에서 종합적 일본 연구로, 다시 지역성 혹은 국제성을 띤 연구로 가는 발전과정은 비단 연구체제의 조정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본 연구가 심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본연구 자체가 일종의 종합적 연구이며, 역사학 역시 종합적 성격이 강한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분과가 지탱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본 역사 혹은 일본 경제 등 어느 한

분야를 연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치는 국제정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일본 경제도 역시 세계 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과 같은 지역의 정치·경제학과는 더욱 긴밀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단면적 일본 연구는 종합적인 지역연구 혹은 국제적 범위의 일본 연구만큼 전면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없음이 자명하다.

3. 경험과 교훈을 모두 중시, '후금박고(厚今薄古) 과거보다는 현재를 중시'가 트렌드

개혁개방 초기, 중국 학자들이 현대 일본 연구에서 더욱 치중하였던 것이 일본 현대화 성공 경험이었던다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들어서는 중국의 현대화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연구가 깊이를 더해 감에 따라 학자들의 인식이 더욱 이성적·객관적으로 변하여 일본 현대화 성공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종합함과 동시에 일본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의 교훈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경제 고속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염 문제, 부실채권 문제, 거품경제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교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을 연구함으로써 일본 연구의 객관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연구 성과를 중국 현대화 건설 사업에 더욱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중국의 일본 연구 학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구 방향을 조정해 나가 현대 일본 연구에 치중하였다. 원래 근현대사 연구를 수행하던 학자들도 방향을 전환하여 전후 일본을 연구하게 되었고, 전후 역사 혹은 전후 초기 일본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현실 문제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현상을 중시하며, 과거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후금박고(厚今薄古)'의 연구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위 '현대 일본' 연구는 더욱더 학자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전체 학문 분야 연구 수준도 계속 향상되었다. 텐진사회과학원의 '현대 일본' 연구 분야는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탄생하였다.

4. 현대 일본 연구 영역에 비전문 일본 연구 인력들 대거 진입

20세기 말 이전의 현대 일본 연구에서 절대다수의 연구성과는 전문적으로 일

본을 연구하는 이들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그들은 일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일본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일본 유학 경험이나 일본에서 학술 연구 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우세는 자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연구, 특히 정부에 연구 성과를 제공하는 연구들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들이 오히려 전문 지식의 결핍과 국정(國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면서 열세를 띠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일본 순환경제에 대한 연구의 경우 전문적 일본 연구 인력들이 순환경제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또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연구 전문 학자들이 비록 일본의 에너지 절약 기술이 매우 선진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중국의 에너지 절약 산업에 대한 전체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계 기관에 연구 성과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행정부처와 위원회의 연구기관에 속한 학자들이 일본 연구, 특히 일본 선진 경험을 참고하기 위한 연구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자기 분야에 대한 우수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일본 현지 조사를 통한 이해, 관련 자료 탐독을 통해 이내 현대 일본 연구 영역에 진입하게 되었고, 매우 높은 전문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연구 성과를 대량으로 출판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선 뒤 비일본 연구 전공자들이 대거 현대 일본 연구의 대열에 들어서서 주요 연구 성과를 다수 내놓음으로써 전문 일본 연구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현대 일본 연구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되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적 상황에서 볼 때, 한편으로는 중국의 현대 일본 연구의 전반적 수준이 아직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연구 기초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연구 인력 층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전 세대의 학자들이 연이어 연구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젊은 연구 인력들이 성장 중에 있다. 또 한편으로 중국 현대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중국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일관계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현대 일본 연구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요구는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일본 연구 분야는 매우 우수한 발전 기반과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다

면 현대 일본 연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 정부와 사회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현대 일본에 대한 중국의 현재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적 소견을 부족하나마 밝혀보고자 한다.

1. 학술연구와 컨설팅 연구의 결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일본 연구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양위중용(洋爲中用)'은 바로 외국 문제 연구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제창하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일본의 성공 경험과 실패의 교훈을 연구하고 본받는 것은 중국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 현대 일본 연구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따라서 중국의 일본 연구자들은 일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도 훌륭히 수행하고 학술 수준을 높여서 연구 성과를 중국의 정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현대 일본 연구 학자들은 중국의 국정(國情)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중국의 현대화 사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며, 연구자가 어떠한 경험과 교훈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가 현실 및 실제와 괴리될 것이고,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연구는 발전 가능성이 사라진다.

2. 일본 연구와 관련 전공 분야 연구의 상호 결합

일본 연구 그 자체는 종합적 연구 분야이다.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기타 여러 방면의 전공 지식과도 연관을 맺게 되었다. 상술한 것처럼 일본 연구자가 순환경제의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일본의 선진적인 순환경제 발전 경험을 연구하고 본보기로 삼을 수 없다. 전문 지식의 결핍은 중국의 일본 연구 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비일본 연구 전공자들이 일본 연구 영역에 대거 진입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놓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일본 연구자들은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일본에 대한 지식을 쌓아 연구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을 습득해야만이 더 높은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비전공자의 연구가 전공자보다 더욱 전문적인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 전공 연구자 개인에게는 이것이 분명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여러 분야에 걸쳐 모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된 전문 지식을 구비하고, 전문 지식의 이해 상황에 근거하여 자신의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중국의 현대 일본 연구 분야 발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심지어 만약 각 분야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지 않는다면, 현대 일본 연구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연구 과제가 널려 있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과제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제들을 맡지 못하며, 기꺼이 맡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한 걸음 나아가는 이가, 보다 많은 전문 지식을 익히는 이가 바로 그들 자신의 학술 분야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다.

3. 일본 연구와 국제 문제 연구·지역 문제 연구의 상호 결합

지금 세계화와 지역경제 일체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일본만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연구 수준을 높이지 못하며,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누군가가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일본은 감기에 걸린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많은 대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산이 해외에 있다. 일본 정치는 국제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일본 경제 역시 세계 경제의 한 부분이다. 일본의 외교, 일본의 사회, 일본의 문화 등 모든 것이 그러하다. 따라서 현대 일본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미국, 유럽, ASEAN, 동북아시아 등 국가 및 지역의 동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을 연구할 수도, 일본 연구를 심화시킬 수도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일본 연구자들, 특히 현대 일본 연구자들은 반드시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서 더 넓은 시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와 지역정세를 살피면서, 동시에 일본을 세계와 지역 정세 발전 추세 속에 놓고 연구·분석해야만이 비로소 일본의 발전과 변화를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 종합연구와 개별연구의 상호 결합

일본 연구는 종합적 연구 분야로서,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을 아우른다. 하지만 학자 개인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어느 한 분야나 심지어는 그중에서도 어느 한 가지 작은 문제만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경우 두 가지 경향을 띠기 쉬운데, 하나는 지나치게 종합적이어서 너무 거시적이고도 공허한 문제를 선택하여 깊이도 취하지 못하여서 학술적 의미도 현실적 의미도 갖지 못하며, 개인 능력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개별적 문제에 집착하여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인데, 자료도 찾기 어렵고, 이론적 의의도 없으며, 결과물 역시 정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 다른 길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방법은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상호 결합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친 사료를 갖추고,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고 상황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정치·경제 추세를 파악하고 그 이면의 객관적 규칙을 알아내어 정확한 이론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정확한 결론과 판단에 도달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일본 연구학계가 이러한 부류의 연구 성과를 출판하거나 발표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는 더욱 노력하여 공부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여 위와 같은 두 가지 극단적 경향을 띠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하면서도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를 갖춘 문제를 선택하여 이론적 배경과 객관적 근거를 갖춘, 설득력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